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2월 8일(금)
... (음력 1월 4일) ...

Пятница
8 февраля 2019г.
№ 5(11682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2일 (토) 사할린인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음력설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아시아 아이들>게임, 국제 기구의 후원으로 2월 9일 개막

사할린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아이들> 첫 동계 유·청소년국제스포츠대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유네스코 러시아 연방 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에 대한 서한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키트 마코벨 스포츠 집행자와 유네스코 러시아 연방 위원회 드미트리 글루쉬코 사무총장이 <아시아 아이들> 동계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내왔다. 국제기구들의 후원으로 <아시아 아이들> 국제 동계스포츠대회에서 올림픽 및 유네스코의 상징들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제1회 <아시아 아이들> 국제 동계 청소년 스포츠 대회는 2월 9일 18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개막된다. 이 첫 대회에는 세계 20개국(카자흐스탄, 몽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네팔, 대한민국, 태국, 홍콩, 요르단, 타지키스탄, 필리핀, 일본,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랍 에미리트, 인도, 쿠웨이트, 시리아, 아르메니아, 러시아)을 대표하는 선수들 약 1200명이 참가한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모스크바·타타르스탄 공화국·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사하(야쿠치아) 공화국·사할린주·시베리아, 우랄 및 극동 지역 선수단들로 전해졌다. 선수들은 8개 종목(알파인 스키, 스노우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 점프, 휘저, 쇼트 트랙과 아이스하키)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사할린 선수들은 쇼트트랙을 제외하고 7개 종목에서 경쟁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아이스하키 외에 모든 종목에서 승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각 종목(바이애슬론 제외)에 출전하는 사할린 선수 중에 동포 아이들이 있다.

(본사기자)

주지사 대행, 외교관들과 간담회 가져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대행은 사할린주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일본, 미국, 네덜란드, 영국, 키르기즈 공화국 등 6개국 외교관들과 만남을 가졌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대행은 사할린에서 외교 공관들의 활동은 해당 국가들과 사할린주와의 상호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석유, 가스, 생물자원 채취에서의 협력사업만 아니라 산업 건설, 관광, 교통, 임산물 가공 및 문화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가들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은 사할린주와 상호협력의 확대를 위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수상 권한대행은 사할린주는 외국 정부와 대외경제협력을 활발하게 발전시키며 장기간 해외 직접 투자 유치와 대외무역량에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에 사할린주의 대외무역량은 150억 달러를 넘어 2017년에 비해 27% 증가했다. 사할린주의 주요 무역 협력은 여전히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과 이뤄지고 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2018년에 탄탄한 경제성장을 보여

작년에 사할린주의 경제발전의 주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총 생산액은 1조1천4백90억 루블리로 증가했고 산업 생산량은 7% (1조880억 루블리) 증가했다. 석유 및 응축가스 생산량은 8.3% 증가한 1930만 톤, 가스 생산량은 7.6% 증가한 324억 m³, 석탄은 1.4배 증가한 1080만 톤에 달했다.

산업별 생산율은 농산물 6.1% 증가, 축산업의 육류는 1.5배 증가, 달걀은 17.3%, 우유는 10.6% 증가했다. 2018년에 사할린주에서는 전기, 스티프 및 운수, 목재, 공학 구조물 및 부품, 생선 통조림, 우유 및 우유제품, 치즈, 발효유제품, 버터, 육류, 반제품, 헬류 및 제빵 제품, 맥주 및 음료 생산량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류 및 해산물의 어획량은 67만2200톤에 달했고 49만1700톤의 수생 생물을 가공했다. 1년간 주택은 26만4300 m²가 준공되었고 실업률은 0.5%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신

북-미 2차 정상회담 2월 27일-28일 베트남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미 하원 의사당에서 가진 신년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국가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북미 실무협상으로 미국 측 스티브 비건 대표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다. 다가올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인사이동

2월 4일부로 사할린주 지사 및 정부 행정실 실장-주정부 장관 권한대행으로 아르세니 드라홀로브가 임명되었다. 1979년에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출생한 그는 행정 및 경제학을 전공하고 2017년에 니즈니노브고로드주 생태 및 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사할린주지사실 실장을 맡기 전에 <아세(아름스트로이엑스포르트)> 엔지니어링 콤파니 모스크바 본부에서 회장실 실장직을 담당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3.1 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페스티벌 진행 예정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회장 이경중)가 주관하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평화통일페스티벌’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오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인 3.1 기념식과 <3.1절 100주년 기념 문화공연>은 2월 20일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통일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유럽 국가, 한국,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방문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인플루엔자 확진 4건 발견

러시아소비자관리보호 및 국민안정감시청 사할린주 관리국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급성호흡기 감염과 독감 확진 3103건이 기록되었다. 확진자 중 2471명이 17세 미만으로 판명되었다. 독감은 지난주에 비해 발병률이 22% 증가했다.

일부 학교 또는 학교들의 일부 반들이 수업을 취소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토마리 제2학교(1학년 반), 스미르니호 구역 포베지노촌 학교(2, 3, 5, 6, 7, 8학년 반),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4학교(2, 4학년 반), 쿠릴스크 구역 고라치예 클류치촌 학교들이다.

17미만의 학생들을 포함해 A형 인플루엔자에 4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환자 모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5명의 17세 미만의 유·청소년(74.5%)을 포함한 208명이 급성장염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 46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30명으로 가장 많고 코르사코브에서는 19명이 감염되었다.

수두 감염은 103건이 기록되었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2월 2일, 지난 토요일, 권오형 씨네 집은 분주했다. 이날 그의 어머니 정순현 어르신(99세)을 맞이하였다. 자녀들과 손주들, 증손주들이 정순현 어르신께 큰절을 올리며 건강과 만복을 빌었다. 생신 잔치에 손님 100여 명이 찾았다고 한다.

얼마 전에 사할린주한인협회 사무실에서 우연히 한 여성분을 만났다. 권옥순(올가) 씨는 시어머니 대신 1세대들을 위한 의료상담실에서 배급하는 의약품을 받기 위해 한인문화센터를 찾아 이번에 시어머니가 99세를 맞이한다고 알렸다. 필자는 바로 인터뷰 허락을 요청하고 날을 잡아 정 할머니를 뵈러 갔다.

빠빠 마른 정 할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아직도 정신이 맑으신 정순현 할머니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고 필자의 질문에 답변하셨다.

정순현 할머니는 양력으로 1920년 2월 17일생, 음력으로는 1919년 12월 28일 한국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셨고 생일은 항상 음력으로 챙기셨다고 했다.

"전에는 우리 집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좀 교육을 받아서, 글을 알고, 선생님질을 좀 하다가 어떻게 되어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정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으셨다.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랬는지 한 분이 사할린으로 5명의 가족을 불러들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정 할머니의 가족은 사할린으로 오게 되었다. 그 당시 7살이었던 정 할머니의 식구는 5명(부모님, 오빠와 남동생)이었다. 정씨네 가족은 야스노모르스크에 마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정순현 할머니는 일본학교 6

학년까지 마치고 한국어는 혼자서 배우셨다고 한다.

얘기하는 도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한국에 귀국한 하나뿐인 딸이 어머니 생신 2주일을 앞두고 금방 비행기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를 찾았다. 뽀뽀하고 포옹하며 기쁨이 가득찬 인사를 나누었다.

정 할머니의 기억이 때로 가물가물하자 딸 권규자 씨가 어머니의 이야기에 보탬을 해주었다.

사할린에서 정 할머니의 친정집은 농사를 지었다. 그동안 식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다. 사할린에 왔을 때 형제 셋이었는데 나중에 여동생 5명이 더 생겼다고 했다.

18살에 시집을 가진 정순현 할머니는 고향으로 떠난 친정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다. 결혼도 하고 1939년에 첫 아들이 태어나서 인사를 못 갔다고 하시며 식구들이 어느 해에 한국에 돌아갔는지 기억을 못하셨다. 1940, 1941년인 것 같은데 1942년 이전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할머니 여동생 둘이 살고 있다. ㅈ적십자사를 통해 모국 방문을 할때 물론 동생들과 만났다.

남편분과는 10살 차이였다. 딸 권규자 씨에 의하면 아버지는 포로나이스크 비행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1954년까지 권 씨네 가족은 크라스노고로스크 구역 벨린스크에 마을에서 살아왔고 그 당시 부친이 콜호즈 낙농장에서 일했었다고 했다.

정 할머니는 환갑상을 받지 못하셨다. 그해에 70이 된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

《나는 며느리 복이 있다》

100세를 바라보시는 정순현 할머니, 90여 년을 사할린에서

향을 그리워하셨거든요."라고 권규자 씨가 말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영 못 살았다시면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신다. "사할린이 내 고향이나 다름 없다."고 하셨다. 그동안 3번 모국방문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다녀오셨고 아들과 며느리가 모시고 구순(90세) 잔치를 한국에서 차려드렸다고 한다.

자녀 8명(7명의 아들, 딸 하나, 그중 아들 둘은 안타깝게도 병으로 사망)을 두신 할머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다. 며느리에 따르면 시어머니께서 많이 굶고 사셨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가 백 살 넘게 살도록 꼭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권옥순 며느리가 여러 번 말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사실 시어머니를 위기상황에서 몇 번이나 구했다. 89세 되시

던 때의 이야기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오징어젖을 먹고 체했는데 너무 아파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가족에게는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상태가 너무 나빠서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곧 돌아가신다.'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되어버렸다. 며느리가 의료전문가를 찾아 바로 조치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한다.

때로는 할머니의 뼈가 부러지거나 크고 작은 병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긴 며느리가 항상 옆에 있었다. 작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함께 <시네고르스키에 미네랄 워터>요양소에 2주간 갇혔는데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서 며느리가 휠체어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휠체어를 위한 진입로가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한다. 산책을 매일 빠짐없이 했다고 했다.

매번 정 할머니는 "나는 며느리 복이 있다. 이 같은 사람 정말 찾기 힘들다."고 하신다. "우리 올케가 최고입니다. 항상 고마워합니다."라고 권규자 씨 시누이가 덧붙였다.

할머니가 5번째 아들 오형씨와 함께 사신 지 벌써 35년이 되었다. 홈스크 구역 빠찌레치에 마을에서 15년, 1990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왔을 때 모시고 왔다고 한다.

"자애젠 어머니가 친 어머니나 다름 없습니다.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우린 수다도 많이 떨곤 합니다."라고 올라며 며느리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직도 정신이 맑으신데다가 식욕도 괜찮으시다. 사탕도 좋아하신다. 5년간은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셨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들과 며느리가

챙겨준 노인 보행기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한다. 쉽게 넘어지니 보행기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도 그리 어둡지 않고 신문은 안경 없이도 읽으신다.

할머니는 새고려신문 애독자이다. "신문을 읽어야 그리 심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문 다 읽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눈이 피곤해서요."

할머니의 99세 잔치를 찾아가본 필자는 이날 소감도 어쭈어보았다.

"한 편으로 재미있어요. 또 한 편으로는 신세를 진 느낌이에요"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이날 할머니를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축하해서 정 할머니네 가족이 좋아하셨다.

정순현 할머니,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2019- 사할린의 얼음> 조국수호자의 날에 개최

사할린에서 연중 가장 흥미로운 겨울행사가 공지되었다. 제 8회 <사할린의 얼음>대회가 조국수호자의 날에 열릴 예정이다. 주 어업기관이 전하는 바로는 희망자 모두 얼음낚시대회 참가에 접수할 수 있고 킬로그램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이 우승하게 된다. 대회에 참가를 위해서는 <사할린의 얼음>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야 하며 2월 23일 아침 9시쯤 돌린스크 구역 나이바강에 낚시대를 가지고 와야한다.

낚시대회는 2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팀별로 경쟁하고, 둘째 단계는 개인별 낚시로 경쟁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할린 얼음>은 사할린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예를 들면 2018년에는 폭설이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겨울낚시 애호가들이 대회에 모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행사장에 평균 얼음의 두께는 약 1미터에 달해 어떤 이가 얼음을 뚫고 물까지 도달하는 동안 다른 이는 벌써 첫 번째 낚인 물고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낚시의 운을 체험하러 나이바강어귀에는 87개 팀이 모여들었다. 2017년에 낚시꾼들은 1팀에 4명으로 구성된 157팀이 참가했다. 때로 강어귀에는 대회 참가자들보다 구경꾼들이 더 많았다.

이외에도 <사할린의 얼음>대회는 특별한 지역행사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회에는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다른 극동지역의 대표들이 이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크림반도팀도 참가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2019» пройдет в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анонсировали самое крутое ежегодное событие зимы. Восьм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проведут в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подлёдной рыбалке 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Выигрывает тот рыбак, кто наловит больше всех рыбы, в килограммах.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уж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 sakhice.ml - и приехать к 9 утра 23 февраля с удочками на реку Найб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в два этапа: сначала будут состязаться команды, а затем рыбаки сразят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зачете.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денежные призы.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 одна из наиболее любимых традиций у сахалинцев. Например, в 2018 году он собрал сотни любителе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даже несмотря на сильный снегопад. Средняя толщина льда на площадке, где проходи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была около метра, поэтому пока одни добивались до воды, другие уже вытаскивали первые хвосты. Тогда испытать рыбацкую удачу в устье реки Найба вышли 87 команд. А в 2017 году рыбаков было еще больше - 157 команд, каждая состояла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Зрителей на реке иногда оказывается едва ли не больше, чем участников.

Причем,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давно уже перестал быть сугубо региона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в нем участв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Москвы и Подмоскovie,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 2016 году была даже команда из Крыма.

사할린주, 2018년 1월-11일간 인구 자연적 감소

사할린주에서 2018년 1월-11일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었다. 사할린주 각 주민등록소에서 79다둥이 출생 (쌍둥이, 세쌍둥이)을 포함해 신생아 5580명이 출생했고 5722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자연적 감소는 142명, 2017년 동시기에 자연적 인구 증가는 395명이었다.

지방 5곳-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돌린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에서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서는 3376건의 혼인신고와 2492건의 이혼신고가 기록되었다. 2017년 동시기에는 혼인 3721건과 이혼 2513건이 기록되었다.

사할린주 내무관리국의 이민국 정보에 따르면 2018년 1월-11월간 사할린과 쿠릴 섬들에 2만 1978명이 내도했는데 그중 55.1%는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했고, 2만2401명은 사할린주를 떠났다. 그중 73.9%가 이전 거주지 등록에서 삭제되었다. 사할린주내에서는 8657명이 거주지를 변경했다. 이주민은 423명으로 감소했다고 사할린주통계국이 전했다.

(8면에 계속)

주한인협회, 기해년 설맞이

지난 2일(토) 사할린한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음력설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에는 지방한인회장, 시 및 주 정부 대표, 외교관, 후원자들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주한인여성회(회장 김 웨칠)와 주한인회(회장 박순옥) 직원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명절 식탁에 앉은 손님들은 이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을 반갑게 감상했다. 음력설 때 세배를 전통으로 한인문화센터 소속 <우리미래>한글학교(담당 박영자) 어린이들이 큰절을 올리고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으로부터 세뱃돈을 받았다.



행사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그룹의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손님들을 축하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황명희 소장은 기해년을 축하하며 건강과 행운을 빌고 "2019년 새해 한민족 설날 며칠 후면 이곳 사할린에서는 제1회 '아시아 아이들' 국제동계스포츠 행사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일본 등 20여개의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할 약 50명의 선수들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소년국제스포츠 축제를 통해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사할린의 숨은 매력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할린은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될 것이며 이런 사할린의 발전에는 우리 한인동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사할린 한인들을 축하하면서 사할린주 정부 다민족부 폴리나 파블리코와 선임 참사관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대내정책국 드미트리 하이브리예브 국장은 각 가정에 행복과 부유함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행사를 주최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도 역시 동포여러분들의 만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모든 가내 안녕을 빌었다. 이날 러시아 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류이제 히라노 총영사, 사할린주 사회원 블라지미르 이콘니코브 의장, 사할린주 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 등이 동포들과 함께 자리를 나누었다. 축하 무대는 <우리 미래>한글학교 학생들의 동요와 율동, <하늘>타악기 그룹의 포퍼먼스, <에트노스>예술학교 <진달래>무용단의 조개춤, 강팔용 가수와 우 미하일 가수의 독창 등으로 이어져 명절 기분을 한껏 안겨주었다. 음력설에 꼭 떡국을 먹어야 한다는 전통으로 떡국을 드신 손님들은 공식부 분이 끝나자 강팔용 가수가 진행하는 한국, 러시아, 외국 노래에 맞추어 즐거운 춤판을 벌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 강제징용희생자 추모관에 관련하여

2월 1일 아니와시 재판소에서 복산원 농장에 세워진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희생자 추모관과 관련한 제2차 소송이 있었다. 그 이후 인터넷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자신의 부모들은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돌기 시작했다. 아래에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보내온 글을 게재한다.

2월 1일 제2차 소송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사할린한국한인회 대표)은 추모관에 모신 모든 위패(사망한 사람의 영혼이 사는 곳)에는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할린섬에 남자들은 강제로 동원됐는데 저의 아버지도 1939년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었습니다.

추모관에 강제동원을 당한 사람들의 위패가 있다면서 그러면 저의 어머니 위패는 어떻게 추모관에 모시게 되었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수천 명의 여성들처럼 남편을 또는 부모들을 따라 왔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많은 고생을 했고 고향을 그리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따라온 여성들은 강제동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다른 남자들은 강제징용되고 탄광, 철도건설장, 벌목장에서 등에서 힘겨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재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에 대해 고소를 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피고는 전체적 맥락을 파내고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 하며 제소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2차 소송 이후 피고는 사할린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한 말을 평가했습니다.)

사할린강제징용희생자 추모관에는 7231 위패가 모셔 있는데 이들은 무연고인 듯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무렵에 사할린한국한인회 측에서 사할린 동포 희생 무연고자 추모관이란 이름을 사할린 강제징용자 이름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피고는 무연고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가져온 현수막, 포스터에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방문한 손님들은 무연고자 추모관 개막식이라 착각한 가운데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추모관 위패는 무연고자 위패가 아닙니다. 자녀, 가족이 있는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들의 가족들은 각자 그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로 가족의 허락 없이 우리 조상

들의 위패를 이 추모관에 모셨습니까? 주한인회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가족 5-6명씩의 위패를 추모관에서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모관에 강제징용자 위패 중 1969년생까지의 자녀, 손자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모관에 사할린 동포가 아닌 156년 전에 자발적으로 북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위패가 모셔지게 되었을까? 이들은 1945년 후 소련 대륙에서 사할린으로 왔었습니다.

어떻게 추모관에 러시아 여성들의 위패가 모셔지게 되었을까? 이들은 한인과 결혼하고 성을 바꾸었지만 완전한 러시아인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일본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지게 되었을까? 한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일본인들의 위패를 어떻게 우리 부모의 위패와 같이 모실수 있나요? 무슨 권리로? 제 생각엔, 추모비에 소련 군인들의 이름과 함께 파시스트들의 이름이 같이 새겨진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재판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우리를 비난만 하고 자기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어제 사할린 한인 5명이 추모관에 자신의 가족들의 위패가 모셔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추모관 지지 호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실(자기 가족 위패 발견)을 알고 나서는 진심을 숨겼다는 사실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위패에 적힌 사망자의 친척을 찾고 사실을 규명합니다.

좋은 취지로 세워진 강제징용 무연고자 추모관은 실제로는 사할린 한인들을 모욕한 추모관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우리를 자기 조상들도 모르고 민족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2019년 2월 5일

'사할린 한인들' 카탈록 출판기념회 진행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이 <사할린의 한인들. 사할린주립박물관 소장 수집품 목록(1945년-2018년)>이란 독특한 수집품 목록집을 편찬해 출간했다.

이 카탈록에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이 1945년부터 2018년까지 사할린 한인들의 물품을 수집해 소장해온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자인 김영희(이리나 보리소브나)와 키라 야코블레브나 치르파코와가 목록집을 편찬했다.

이 카탈록은 사할린주의 한인들이 박물관에 헌납하고 박물관 직원들이 수집한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616개의 물품들과 사진들은 사할린 한인들의 풍성하고도 흥미로운 생활품 문화의 역사를 비추어 보이고 있다. 목록집은 사진, 육필 문서, 서류, 가구, 생활용품에 대한 기록과 모습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할린 한인 중 김춘경(타마라 와실리에브나), 김춘수, 소련 노동 영웅 호칭을 받은 유명 어부 한 알렉산드라 스테파노브나의 개인적 수집품도 포함돼 있다.

소련 시대 이후 사할린 한인들은 자주 학자들의 연구대

상이 되었는데 주로 역사적 및 정치적인 문제들 (본국송환, 국제적 관계, 소비에트 시절 생활과 러시아 사회에 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 속 문화적 측면을 알릴 만한 연구 자료는 아주 적다. 이에 대한 주제로 박승의 전 사할린국립대 교수만 연구한 것 같다.

<사할린 한인>카탈록은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문화에 민속학적 연구자료가 보강되어 책으로 편찬되었다. 수집에는 사진, 사진설명과 함께 참고주를 곁들여 일본어와 한국어의 물품들 명칭을 번역해 놓았고 편찬자들은 지리적, 명칭의 목록을 상세히 적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목록들이 소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역사와 함

께 해온 물품을 박물관에 헌납한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중요한 역사적 민속학적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2019년1월 24일 <사할린



한인들>수집품 목록집 출판 기념회가 조성되어 방문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 많은 행사 관객들은 이날 향토박물관진 율리아 선임 연구가(본 카탈록 총감수, 편집)·김영희 소장품 관리자, 역사학 박사 아나톨리 쿠진 교수 등이 카탈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출판물은 지속적으로 사할린주 한인들의 문화 콘텐츠 연구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며 이들 문화의 민속학적, 역사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출판기념회에서 강조되었다.

(본사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В конце мая — начале июня запланирован визит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бизнес-мисси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ю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рпорац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Коре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орпорацие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рпорацией, заключенного на площадк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2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Предстоящее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установлению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и и 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 случа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и в целях организации эффе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цев просят направить в адрес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й бизнес-мисс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аких отраслей, с какими проектами рекомендуется включить в состав бизнес-миссии, какие вопросы необходимо озвучить и др) 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ятии (Ф. И. О., должность, номера телефонов,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в случае готовности участия во встреч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области.

Координац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осуществляет Яна Ким,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отдел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лефон: 8(4242) 670-835,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y.s.kim@sakhalin.gov.ru.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др.)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с 14 января 2019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11 февраля 2019г.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9:00 – 18:00

Обед: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К вопросу о мемориале безродны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После второго заседания суда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телефонных чатах стала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якобы, заявила о том, что ее родители не завезены насильственно на Сахалин.

В связи с этой ситуацией ниже публикуем письмо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1 февраля состоялось второе заседание суда. Ответчик -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явил о том, что все имена, размещенные на випхэ - поминальной табличке (где живет душа умершего)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ринадлежат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м корейцам, привезенным на Сахалин.

Всем известно, что на остров для тяжелых работ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ли мужчин, и мой отец был мобилизован на Сахалин в 1939 году.

Как же тогда там оказалась поминальная табличка моей мамы? Если он говорит, что в комплексе находятся випхэ с именам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Но моя мама, как и тысячи женщин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либо вслед за своими мужьями, либо с родителями. Да, они испытали все тяготы и лишения, боль разлуки с родной наравне с мужчинам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я сказала, что мама и другие женщины не бы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ми. Но эт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касается наших отцов и других мужчин, которые был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завезены и жестоко эксплуатировались на тяжелых работах: на шахт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и лесоповалах.

Мои слова стенографировались секретарем на суде. Теперь мы имеем право подавать в суд еще и за ложь. Ответчик вырывает из контекста только то, что ему выгодно, искажая смысл сказанного.

(Сразу после второго заседания сторона ответчика, дала оценку

моих слов в своей интернет газете Сахалин синмун)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амяти обездол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повинности при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размещены поминальные таблички с именами 7 231 умерших, у которых якобы нет родных.

Узнав о начале судебного де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менял прежнее название мемориала (мемориал для безродных корейцев) на новое (мемориал для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ривезенных корейцев). Ответчик заявил, что вывеска с названием мемориала изначально была только на плакатах, привезенных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начит, прибывшие на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ости были также введены в заблуждение, что у людей, чьи имена размещены в мемориале, не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Мы знаем, что дети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есть и по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правляют поминки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и родственникам. Так по какому праву, без разрешения родственников разместили поминальные таблички с именами наших предков. Среди обратившихся к нам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 там по 5-6 членов своих семей.

Как в комплексе оказались дети и внуки вплоть до 1969 года рождения сред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ак в комплексе оказались имена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не явля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ми, чьи потомки переселились добровольно в Россию с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ва 156 лет тому назад. Да, в дан-

ный момент они живут на Сахалине, но переехали сюда после 1945 года с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СССР.

Как в комплексе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русские женщины? Да, они были замужем за корейцами и поменяли фамилию, но они — русские, православные. Также есть таблички с именами этнических японцев. Как их поминальные таблички можно было разместить в комплексе, где находятся випхэ моих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х японцы эксплуатировали во время войны? По какому праву? Почему нас так оскорбляют! По-моему мнению, это равносильно тому, что на памятном мемориале с именами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появятся имена фашистов.

Все это было заявлено на слушании в суде. Ответчик снова продолжает нас обвинять, не признавая своей вины

Вчера еще 5 человек нашл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стати, один из них подписал обращение в поддержку мемориала, а теперь он очень возмущен, что от него скрыли правду.

Еще до суда мы не хотели причинять боль людям, рассказывали о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в общих чертах, но сейчас мы сознательно ищем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сообщаем им об этом, что приводит их в шок.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обидно, что столь благородное дело и идея создания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езродным насильственно завезенным на Сахалин корейцам стал по сути мемориалом унижения островных корейцев. Нас причислили к людям, которые не помнят своих предков, не чтят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Больно...

5 февраля 2019 г.

Судьбу поясов чемпионов Азии по кикбоксингу определ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кикбоксингу за звание чемпиона Азии прошёл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на Сахалине.

На ринге УТЦ "Восток" встретились сильнейшие бойц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Южной Кореи. Турнир собрал огромное число болельщиков, которых ждали шесть захватывающих поединков.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зрителей, спортсменов и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 Егор Умнов, президент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кикбоксинга Алексей Буторин, а также вице-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кикбоксинга и муайтай Хванг Джонхо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кикбоксинга и муайтай Хан Понг Кио.

Турнир открыл поединок в лёгком весе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цем Эдуардом Боговином (54 кг) и холмчанином Андреем Ультуркеевым (56 кг). В первом разогревающем бою вечера досталась спортсмену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напряжённой схватке он выиграл соперника по очкам. Далее лицом к

лицу сошлись Владимир Леонтьев (60 кг) из Хабаровска и Евгений Шершников (60 кг)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 итогу битвы королём ринга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60 кг стал хабаровчанин. С каждым новым боем страсти накалялись, поединки становились всё динамичнее, и уже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в весе 84 кг между Вячеславом Масловым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Загидом Шамиловы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кончилась нокаутом для последнего.

Следующий бой стал особо значимым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Зал ликовал, когда канатную черту ринга пересёк южносахалинец Юлиан Красавин. Ему предстояло сразиться в реинтинговом поединке в весе 63,5 кг со Степаном Прудкиным из Хабаровск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боя преимущество явно было на стороне Юлиана. Зрелищная и кровавая схватка обещала закончиться нокаутом для хабаровчанина. Тем не менее гость турнира отстоял все три раунда, а сахалинец праздновал победу.

Далее пришло время главного события вечера — титульных поединков "Россия vs Корея" за пояса чемпионов Азии. Первыми заветный трофей оспорили Михаил Ко-

вылин из Уссурийска и Ким Джин-кук из Сеула. Кстати, перед началом боя россиянин подарил последнему шапку-ушанку, в которой вышел на ринг.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ыход отличался высокой техникой спортсменов. Они бились на равных и до последней минуты сохраняли интригу исхода боя. В итоге первого чемпиона определил не нокаут, а количество очков — победу в упорном бою присудили Михаилу Ковылину.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титульный бой между Чоу Гванг Мином (Сеул) и Исламом Абдувахидовым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выдался не менее зрелищным и запомнился чередой нокаутов. Ближе к концу боя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второй чемпионский пояс уедет в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Так и случилось, Ислам выдержал все пять раундов, но проиграл по очкам, а Чоу Гванг Мин стал чемпионом Азии в весе 67 кг.

Спортсмен из Кореи признался, что бой был очень сложным, отметив хорошую подготовку российского кикбоксёр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торой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27-28 февраля во Вьетнаме

Второй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27-28 февраля во Вьетнам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выступая 5 февраля в Кон-грессе с ежегодным посланием «О положении страны». Вели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тороны определили дату и место на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ах. Однако город, в котором пройдёт саммит, не назван. Обращае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то, что второй саммит, в отличие от первого,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В этой связи его участ-ники,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дробно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тем, Дональд Трамп сообщил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встретиться в ходе азиатской поездки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ом. В повестку амери-кано-китайского саммита могут войти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о 1 марта торговых споров ме-жду США и КНР. Незадолго до выступления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в Конгрессе американская газета Politico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зидента США сообщила дату второго американо-с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Однако в Белом доме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не стали, со-славшись на то, что Дональд Трамп лично сообщит под-робности.

Проблема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усугубляется

Каждый год усугубляется проблема старения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На этом фоне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з их числа скончались 4.914 человек. На это указывает система учёт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ан-ных, действующая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Обществе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истем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33.208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ода-вавших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ах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на Севере с 1988 года.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в живых из них остаются лишь 55.987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с каждым годом темпы сокращения их количества растут. Так в 2018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оказался в 1,45 раза выше, чем два года назад.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астёт и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20,6% приходится на тех, кто старше 90 лет, 41,1% - от 80 до 89 лет. В общем, на людей старше 70 лет приходится 85%. В хо-де Пхеньянско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Юг и Север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здать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ий центр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тречи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й и обмен видео-посланиям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тречи по видео к Новому году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о пока сделать этого не удаётся из-з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ведения из-под санкций требуе-мого для эт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епутаты РК выступают за переоценку вклада Ю Гван Сун в движени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До 100-летия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оздания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остался примерно месяц. На этом фоне в РК активизи-руется движение по подготовк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базы для присуждения более высокой награды Ю Гван Сун, корейской героин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изм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5 февраля,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ак Ван Чжун инициа-тировал проект о принят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с та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Согласно ему, учитывая вклад Ю Гван Сун в раз-витие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 также влия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о и общество, допуск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ыше-ния степени её награды, а данный вопрос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Ю Гван Сун удостоена ордена за заслуги в де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етьей степени «Тоннипчан». В этой связи многие высказывали мнение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вышения степени награды,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Ю Гван Сун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сего орден за заслуги в де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меет пять степеней. Это Орден РК – Тэханмингукчан, Прези-дентский Орден – Тэтхоннёнчжан, Орден Независимости – Тоннипчан, Орден Патриота – Эгукчан и Народный Орден – Эчжокчан. Орден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Тэханмингукчан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известные деятели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им Гу, Ан Чхан Хо, Юн Бон Гиль.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что в сравнении с ними вклад Ю Гван Сун был недооценён. Между тем, депутат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Ли Мён Су инициировал резолюцию с требованием о повышении степени награды Ю Гван Сун. К ней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ещё 18 депутатов партии.

(RKI)

Расписание Игр «Дети Азии»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ройдут с 8 по 17 февраля. За неделю состо-ится около 30 состязаний в разных дисциплинах. Всего заявлено 8 видов спорта: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сноуборд,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хоккей, конькобежный спорт (шорт-трек) и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Перв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состоятся 9 февраля. В этот день пройдут состязания по двум дисциплинам: лыжные гонки и конькобежный спорт (шорт-трек).

Самыми массовыми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станут состязания по шорт-треку, лыжным гонкам и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Однако и в других видах заявили десятки спортсменов. Всего на играх выступит около 1300 атлетов.

Последний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й день пройдет 16 февраля.

Посетить игры с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ход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бесплатный.

Подробнее расписан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10 февраля (воскресенье) - Супер-гигант 10:30 - 11:15 – Девушки; 11:20 - 12:10 - Юноши
12 февраля (вторник) - Слалом-гигант Девушки- 10:00 - 10:35 (1 заезд); Слалом-гигант Юноши - 10:40 - 11:20 (1 заезд); Слалом-гигант Девушки - 12:30 - 13:05 (2 заезд), Слалом-гигант Юноши - 13:10 - 13:50 (2 заезд)
15 февраля (пятница) – Слалом Девушки - 10:00 - 10:35 (1 заезд); Слалом Юноши 10:40 - 11:20 (1 заезд); Слалом Девушки - 12:30 - 13:05 (2 заезд); Слалом Юноши 13:10 - 13:50 (2 заезд)
16 февраля (суббота) - 11:00-13:00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2 девушки+2 юношей)

Сноуборд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ора Парковая"):

11 февраля (понедельник) – Параллельный слалом гигант девушки/юноши 10:00 квалификация 14:00 финал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фициальная тренировка 10:00-14:00 Биг-эйр ("Гора Парковая")
12 февраля (вторник) - Биг-эйр (юноши) 10:00 - 10:30 - разминка, 10:45 - 12:00 Квалификация; Биг-эйр (девушки) 12:00 - 12:20 - разминка, 12:30 - 13:15 Квалификация; 13:30 - 14:00 разминка финала, 14:00-15:30 Фи-нал девушки/юноши ("Гора Парковая")
13 февраля (среда) - Параллельный слалом девушки/юноши 10:00 квалификация, 14:00 финал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фициальная тренировка 10:00-14:00 Слоуп-стайл ("Гора Парковая")
14 февраля (четверг) –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араллельный слалом гигант) (1 девушка + 1 юноша) - 10:00 - 12:30(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лоуп-стайл (юноши) 10:00 - 10:30 – разминка, 10:45-12:00 – Квалификация, ("Гора Парковая") Слоуп-стайл (девушки): 12:00 - 12:20 –разминка, 12:30-13:15 - Квалификация; ("Гора Парковая") 13:30-14:00 разминка финала, 14:00-15:30 - Финал девушки/юноши ("Гора Парковая")

Биатлон (Лыжно-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10 февраля (воскресенье) - 10:00-10:50 - Пристрелка Девушки, Спринт 4,5 км 11:00 - 12:00 - Девушки, 12:30-13:20 - Пристрелка Юноши, Спринт 6 км 13:30 - 15:00 - Юноши
12 февраля (вторник) - 10:00-10:50 - Пристрелка Девушки,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гонка 7,5 км 11:00 - 12:30 - Де-вушки, 13:00-13:50 Пристрелка Юноши,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гонка 10 км 14:00 - 15:45 Юноши
14 февраля (четверг) - 10:15-10:45 Пристрелка, Смешанная эстафета 1x1 11:00 -12:00 (1 девушка x 4,5 км + 1 юноша x 6 км), 12:30-13:00 Пристрелка, Смешанная эстафета 2x2 13:15 -14:30 (2 девушки x 4,5 км + 2 юноши x 6 км)
16 февраля (суббота) - 10:15-10:45 - Пристрелка, Эстафета дружбы: Девушки - 11:00 - 12:30 (2 девушки из разных команд x 4,5 км), 12:45-13:15 - Пристрелка Юноши, Эстафета дружбы: Юноши - 13:30 - 15:00 (2 юноши из разных команд x 6 км)

Лыжные гонки (Лыжно-биатлонный комплекс):

9 февраля (суббота) - 13:00 - 14:30 - финал девушки/юноши
11 февраля (понедельник) - 11:00 - 12:00 -Свободный стиль 5 км Девушки, 13:30 - 15:00 - Свободный стиль 10 км Юноши
13 февраля (среда) - 11:00 - 12:30 - Смешанная эстафета 2x2 (2 юноши x 5 км + 2 девушки x 3 км)
15 февраля (пятница) –Эстафета дружбы 11:00 - 12:15 (2 девушки из разных команд x 3 км) - Девушки, Эста-фета дружбы 13:00 - 14:30 (2 юноши из разных команд x 5 км) - Юноши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Трамплинный комплекс):

12 февраля (вторник) - Ли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К-70 Девушки -15:00 - 17:00, Ли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К-70 Юно-ши - 18:00 - 20:00
14 февраля (четверг) - Командная дисциплина МИКСТ HS 50-84 1 юноша + 1 девушка -18:00 - 20:00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на коньках (Дворец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13 февраля (среда) - 16:00 - 21:30 Одиночное катание (короткая программа) - девушки
14 февраля (четверг) - 16:00 - 20:00 Одиночное катание (короткая программа) - юноши
15 февраля (пятница) –11:00 - 15:30 Одиночное катание (произво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 Юноши, 16:00 - 22:00 Одиночное катание (произво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 Девушки

Конькобежный спорт (шорт-трек) (Дворец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9 февраля (суббота) - 12:25 - 17:25 - 1500 м Девушки/Юноши
10 февраля (воскресенье) - 13:25 - 18:46 - 500 м Девушки/Юноши
11 февраля (понедельник) - 13:25 - 18:23 - 1000 м Девушки/Юноши
12 февраля (вторник) - 13:30-17:35 Эстафетные забеги - 3000м Девушки/Юноши

Хоккей (юноши)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 "Арена Сити")

9 февраля (суббота) - 10:00-13:00 - Игра 1, 13:30-16:30 - Игра 2
10 февраля (воскресенье) - 10:00-13:00 - Игра 1, 13:30-16:30 - Игра 2, 17:00-20:00 - Игра 3
11 февраля (понедельник) - 10:00-13:00 - Игра 1, 13:30-16:30 - Игра 2, 17:00-20:00 - Игра 3
12 февраля (вторник) - 09:00-12:00 - Игра 1, 12:30-15:30 - Игра 2, 16:00-19:00 - Игра 3, 19:30-22:30 - Игра 4
13 февраля (среда) - 09:00-12:00 - Игра 1, 12:30-15:30 - Игра 2, 16:00-19:00 - Игра 3, 19:30-22:30 - Игра 4
14 февраля (четверг) - 14:00-17:00 -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15 февраля (пятница) – 14:00-17:00 - 1 полуфинал, 18:00-21:00 - 2 полуфинал
16 февраля (суббота) - 10:00-13:00 - ИГРА ЗА 3 МЕСТО, 14:00-17:00 - ФИНАЛ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2018 году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уверен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отмечена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основ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развития субъект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превысил отметку в 1 триллион рублей (1,149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очти на 7 процентов вырос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1,088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Добыча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увеличилась на 8,3 процента до 19,3 миллиона тонн. Газа добыто больше на 7,6 процента (32,4 миллиарда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угля – в 1,4 раза (10,8 миллиона тонн).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ырос на 6,1 процента. В аграрной отрасли значительно (в 1,5 раз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яиц получено больше на 17,3 процента, молока - на 10,6 процента.

В 2018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лесоматериалов, конструкций и деталей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есервов рыбных, молока и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ов, кисло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мяса, мясных субпродуктов 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колбасных и хлебо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пива и без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составил 672,2 тысячи тонн, переработано 491,7 тысячи тонн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За год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о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64,3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сложился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 0,5 процента.

I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получили патрона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исьмо за подписью спортивного директо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МОК) Кита Макконнела поступило в оргкомитет игр «Дети Азии». Это откры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включа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имволики МОК - олимпийских колец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времени подготовки и проведения игр.

По мнению Дмитрия Глушко, презид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митета игр «Дети Азии», патронат МОК -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провести свой первый старт в олимпийском движении.

—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Дети Азии» получили призна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Игры доказывают, что дет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популярными 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Они становятся мощ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тех, кто только начинает свой путь в спорте, а также для желающих заниматься 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Глушко.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пуляризаци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развит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в регионе.

— На Сахалин при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стран, и я надеюсь, они смогут оценить красоту природы,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о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игде больше в России вы не увидите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буквально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Можно сразу посмотреть несколько соревнований. Все эти сооружения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и принесут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льзу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и после игр. Кроме того, благодаря развитой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Сахалин станет идеальной базой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страны к Олимпиадам в Токио и Пекин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I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стартуют 8 февраля.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нут 1197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 стран. В их числе Казахстан, Монголия, Узбе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 Непа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Таиланд, Гонконг, Иордания, Таджикистан, Филиппины, Япония, Афганистан, Кыргызстан, ОАЭ, Индия, Кувейт, Сирия, Армения. Россию представят команды из Москвы, Республик Татарстан, Башкортостан, Саха (Яку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яда регионов Сибирского, Уральского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Награды будут разыграны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е лыжи, сноуборд,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и хоккей.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состоится 9 февраля в 18:00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Расписание состязаний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игр в разделе «Новости»: <https://sakhalin2019.org/novosti.html>.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Холмске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район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я Наумова.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он посетил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отрасл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ервис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ейчас из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ия на баз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бакалавриата. Развита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база техникума позволяет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том числе по программам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обсудить этот вопрос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которые хорошо знают рынок труда. Очень важно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конкре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чтобы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дипломов они были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трудоустроены,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Наумов. — Кроме того, нов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повысит статус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их техникумах пока нет бакалавриата, н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посетил школы и детские сады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школе села Чапланово было дано поручение —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истройки к столовой. Для соответствия нормам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требуется расширение площади пищеблока. А в детском саду «Солнышко» в Холмске поручено провести экспертизу необходимых ремонтных работ.

Кроме того, Сергей Наумов осмотрел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на улице Некрасова в новом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Холмска. Там в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планировалось возвести школу на 400 мест, чтобы ликвидировать вторую смену в районе.

—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рождаемости, поэтому мы прорабатываем вопрос, возможно ли построить на этой земле школу для большего числа учащихся. Например, существует типовый проект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на 500 мест. Он уже прошел все экспертизы, и, ес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можно ускорить нач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сказал зампред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анный проект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временной школы в селе Дальнем.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кроме просторных учебных класс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тудия живопис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астерские для уроков технологии, где школьники смогут освоить резьбу по дереву и металлу, шитье и кулинарию. В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ых лабораториях установят современное цифр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Будет обустроен класс для занятий техническим творчеством —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3D-моделированием.

Напомним, за дв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сти 12 новых школ и пристроек к существующим. Будет создано более 5 тысяч учебных мест. На эти цели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4,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спространили бесплатные билеты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 10 по 13 февраля выступят артисты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овосибирска, Якутска.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е билеты можно было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в кассах Чехов-цент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кино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Октябрь» и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ило насыщенную творческую часть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 сцене ККЗ «Октябрь» откро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Сибирский хор. Репертуар коллектива, созданного в 1944 году, насчитывает более 500 вокально-хоров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Среди них — обработки народных, игровых, обрядовых песен,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композиции. Кстати, хор давал концерты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Сочи.

«Терем-квартет»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воими оригинальными аранжировками и виртуозной игрой переворачивает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Музыканты выступали в Ватикане перед Папой Римским, на саммите Большой Восьмерки, на Олимпиадах в Барселоне, Лондоне, Ванкувере и Сочи, на конкурсе «Евровидение». А 10 февраля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ансамбль подарит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тот же день в «Октябре» выступит московская группа «MBAND». Первый сингл группы — «Она вернется» —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хитов страны в 2015 году, и коллектив получил премию «MTV Europe Music Awards»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российский артист».

11 февраля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фигуристы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редставят вниманию зрителей ледовое шоу. А на сцене город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даст концерт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ГУЛУН»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атр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з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Участниками твор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Детей Азии»

также станут артисты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эстрадного центра «Apelsin» — победители 120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ов, золотые медалисты Всемирных Дельфийских игр. 11 февраля коллектив выступит в Чехов-центре, а 12 февраля — в «Октябре».

Завершением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нет спектакль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мени П. А. Ойунского «Желанный голубой берег мой...» по повести Чингиза Айтматова. Эта постановка в 1986 году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емии СССР. И 13 февраля в Чехов-центре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главного театра Якутии, которы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тметит 95-летие.

Кроме того, в перерывах между спортивными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а также в зонах прожи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игр будут выступать сахалинск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Десятки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или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переход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цифровое эфир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В регионе состоялась прямая телефонная линия по данной теме.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звонков поступила от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На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цев ответили сотруд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вязи.

Большинство звонивших интересовалось, как принимать бесплатный цифровой сигнал на телевизоры старого образца. Сотрудн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разъяснили, что дл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приобрести антенну дециметрового диапазона — коллективную или индивидуальную, наружную или комнатную,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Ее стоимость — от 300 рублей.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куп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цифровую приставку стандарта DVB-T2, ассортимент которых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 на рын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имость — от 700 рублей.

Напомним,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эфирного сигнала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телевизор имел тюнер DVB-T2, поддерживал стандарт сжатия видеосигнала MPEG-4 и режим Multiple PLP. Проверить это можно в техническом паспорте телевизора. Если техника отвечает этим требованиям, нужно перенастроить е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нструкцией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Чаще всего достаточно подключить к телевизору штекер антенного кабеля и запустить автопоиск каналов.

За пределами зоны цифрового эфирного наземного вещания понадобится специальный льготный комплект оборудования одного из операторов спутникового вещания, к примеру, «НТВ+», МТС или «Триколор ТВ». Цена на рынке составляет — от 8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эфирного сигнала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магазинах, торгующих электроникой.

Часть вопросов от сахалинцев касалась порядка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й. Жителям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денежная выплат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сигнал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и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м гражданам, нуждающимся в поддержке. Льгота выплачивается в размере фактически понесенных расходов, но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15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следует обращаться в отде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ил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центр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выплаты необходимо подготовить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Туда входят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справка о составе семьи, а также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доходы всех членов семьи, и контрольно-кассовые чеки.

Несколько сахалинцев сообщили о том, что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цифровой телесигнал, хотя находятся в зоне вещания. Гражданам разъяснили, что им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заявку по телефону: 8-800-220-20-02 или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ckp_sakhalin@rtrn.ru.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радиотелевизионный передающий центр» получит ее и отправит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на месте разберутся в причинах проблемы.

Также люд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на подъездах их домов появились объявления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ризывают срочно подключать кабе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иначе они останутся совсем без вещания. В этом случае сахалинцам также рекомендуют позвонить по вышеуказанному телефону 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ся запуск сети станций, передающих второй мультиплекс.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работают все 62 передатчика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мультиплекс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в отличном качестве уже сегодня доступны 20 программ пакета цифровых телеканалов. Пакет РТРС-2 (второй мультиплекс) включает в свой состав следующие телеканалы: «Рен ТВ», «Спас», СТС, «Домашний», «ТВ-3», «Пятница», «Звезда», «МИР», ТНТ и «Муз ТВ». Он доступен на 51-м телеканале, центральная частота вещания - 714 МГц.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창작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찾고 있는 재일동포 사진작가

지난 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중앙도서관에서 일본의 김사직 사진작가의 <스토리>사진전이 열렸다. 이날 도서관에 모인 학생, 장애인단체 대표부터 러시아 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 류이찌 히라노 총영사까지 김 작가의 창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은 김 사직 일본 작가의 창작력을 높이 평가했다. 필자는 이날 이예식 본사 사진기와 김 지연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와 함께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이 두 전문가들은 "작품이 좋다"고 말했다.

전설, 신화, 민족성, 동화, 환상 - 이 모든 표현이 그의 작품과 연관돼 있다.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처음엔 모습, 그와 관련 스토리를 생각하고, 다음엔 모델을 찾고, 자기가 생각한 의상을 입히고 그 의상도 때로는 직접 만들기도 한다."고 김 작가가 이야기했다. 그는 작품을 특수종이로 프린트한다. 이번에는 작품을 사할린에서 프린트하게 되어 천에 찍었는데 느낌이 좋았다. 이 작품에 많은 방문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도 잘 몰라요. 이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집에서 일본말만 했습니다."라고 김 작가가 필자에게 설명했다.



그는 20세까지 일본 성씨를 갖고 있다가 20세에 김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했는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서 아닌가 싶다. 알고 보니 '김'은 그의 본래 성씨로 김해 김씨라고 했다.

김사직 작가는 한국어도 몰랐다. 지금은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교토에는 남과 북 출신의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며 그중 몇 분이 그의 작품 모델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포 할머니 세 분이 삼신할미의 모델이 된 작품이다.

김사직 사진작가에게 사할린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개막식 후



그는 포로나이스크로 떠났다. 그는 북방 소수 민족 원주민의 삶과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

김사직 작가는 1981년에 교토에서 출생. 디자이너 전공,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며 교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 개인전, 공동전시회. 2016년 <새 시대의 사진>경연대회 대상.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과 한국 학생들이 영토문제에 관한 질문에 응답

사할린국립대학교의 <과학, 교육, 사회>인터넷 잡지에서 서울대학교 교수 홍두승 사회학 박사와 사할린국립대 교수 프로코펜코 세르게이 빅토로위츠 사회학 준박사의 연구자료가 발표되었다. 저자들은 서울대 대학생들과 사할린국립대 대학생들 중에서 러시아 남쿠릴열도와 한국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한 양국 대학생들의 의견이 흥미로운 것 같다.

예를 들어, 첫 질문 '쿠릴 열도 일부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법적 기반이 있는가?'란 질문에 서울대 학생들의 답은 '예' - 4.3%, '아니요' - 18.4%, '대답하기 어려움' - 66.4%, 이 문제에 관심 없음 - 10.9%.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 - 9.3%, '아니요' - 74.8%, '대답하기 어려움' - 15.9%.

여론조사 응답자 대다수가 러시아 연방의 쿠릴영토의 주장에 대한 법적 권리 문제에 대해 의문 여지가 없다. 그와 함께 '대답하기 어렵다'는 응답에 한국 대학생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이웃나라 역사보다 훨씬 잘 안다는 뜻이다.

'쿠릴 열도 분쟁의 유발은 어느 나라일까?'란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한 한국 대학생들은 31.3%와 러시아 대학생들은 84.9%가 답했다. <러시아>라고 한 한국 대학생은 7.4%, 러시아 대학생은 2.2%가 답했고,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한 한국 대학생은 50.4%와 러시아 대학생은 12.9%였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반하여 한국과 러시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에 한국 대학생들은 60.5% 러시아 대학생들은 36.7% 답했다. '아니다'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10.2%, 러시아 대학생들이 27.0% 응답하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는 사할린국립대 대학생 256명, 서울대 대학생 256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 교육, 사회>인터넷 잡지에서)

<하늘과 바다 사이에> 살고 있는 작가 양 세르게이

지난 4일(월)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100석의 강당실은 만원을 이루었다. 러시아작가동맹 양 세르게이(양수복) 시인·작가의 <하늘과 바다 사이에 살고 있다>문학의 밤은 주도서관과 러시아작가동맹 사할린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러시아작가동맹 사할린지부장 니콜라이 타라스브 시인은 양 작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양 작가의 삶과 창작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날 양 세르게이 작가에 대한 사할린 작가들의 평도 들어볼 수 있었고 도서관 직원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감성이 가득한 시를 낭독해 감상할 수 있었다.



양 시인도 역시 시와 일부 단편을 직접 낭독하고 자신의 부모, 가족을 통해 사할린 한인사도 그려냈다. 주도서관에서 준비된 양 세르게이 작가에 대한 영상도 상영하고 관객들의 질문에 답변도 했다. 그는 첫 책 출판에 큰 도움을 준 허남영 시인을 비롯해 항상 협조하는 안나 사포노와 시인, 이리나 레위테스 작가, 니콜라이 타라스브 시인 등에게 감사를 올렸다.

문학의 밤은 분위기가 참 좋았고 관객들은 꽃다발을 주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인을 받기도 했다.

고희(70세)를 바라보는 양 세르게이 (1949년 3월 출생) 작가는 이르쿠츠크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할린압도르>회사의 일반 마스터(현장 책임자)부터 대표이사까지 하였다.

1997년에 <아버지의 환상의 나라>첫 작품을 집필하여 2002년에 첫 출간했다. 그후 시집과 소설 5권(<비의 노래를 감상하면서>시집, <꽃들의 그림자>시집, <고독한 구름의 꿈>소설, <조용한 행복>시집 등)을 출간했다. 그의 작품은 <극동지역>잡지와 <문학신문>지, <사할린>문집 등에서 게재되었고 수상으로는 <극동지역>잡지의 문학상, 사할린주지사상을 받았다.

(취재: 배순신/글, 이예식/사진)



법무부,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 4세대 이후까지 확대 추진

▲ 법무부가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설치했던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고려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와 편지 세 장 중에 직접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려인 4세 김윤라 양 (사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이 최근 모국을 찾고 있지만 재외동포법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돼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시베리아·사할린 등 강제이주 동원 동포에 대한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대상을 현행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로 이들에 대한 국내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한시적 구제조치로 체류하는 동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516명이며 거의가 고려인 동포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다수 의원 법안들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기초법질서, 한국사회이해 등을 주제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모국에 대한 기여 기회와 동포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За январь-ноябрь 2018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ноябрь 2018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5580 родившихся, в том числе 79 многоплодных родов (двойни, тройни), и 5722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142 человека,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прирост составлял 395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п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3376 браков и 2492 развода против 3721 брака и 2513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ноябрь 2018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и 21 978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55,1%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22 401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3,9%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8679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423 челове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 복지회관에서 몇몇 쌍이 결혼식을 올렸다

사랑에 빠지고, 만나고, 결혼하는 것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사할린의 사회복지회관도 예외는 아니다. 마카로브 노인 및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몇몇 쌍이 부부가 되었다. 이들은 부부관계를 등록하고 복지회관 관리부는 이들에게 함께 살아갈 방을 배당해 주었다.

신랑 중 한 사람, 유리 알람킨은 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한다. 그의 아내 엘레나가 운동을 돕고 있다. 아내 또한 운동 없이는 하루를 보내지 않으며 그녀의 장애는 조금도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복지회관에는 <건강 증진>이라는 특별 재활프로그램을 몇 단계로 세분하여 실시하는데 체육관에는 운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기압력 훈련시설과 수직 재활보조기가 설치돼 있다. 이 복지회관의 모든 사람들은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 기관 직원들의 주요 목표는 심각한 질병 후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데 있다.

타치아나 위자키나는 전직 의사였으나 뇌졸중 이

후 이곳에서 거의 정상치로 돌아왔다. 그녀의 기억도 남편의 도움으로 회복되었다. 남편 아르카지와는 이 시설에서 만나 얼마 전에 부부가 된 관계이다.

마카로브 복지회관에는 입소자들이 100명이 넘는 데 그중 5분의 1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모두가 활동적으로 살고 있으며 외부세계와 격리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모든 체력단련과 경기에도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연 산책과 수영장에 가는 내부 행사도 진행합니다."라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회관의 엘레나 폴키나 관장이 말했다.

지도부의 장래의 계획은 자원봉사 활동이다. 봄에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입소자들은 환경운동 부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В сахалинском доме престарелых сыграли несколько свадеб

Люди влюбляются, встречаются, женятся - такое происходит везде, и соци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а - не исключение. В Макаровском доме-интернате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образовалос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семейных пар. Он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отнош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шла навстречу и выделила семьям отдельные комнаты.

Один из «молодоженов» - Юрий Алямкин. Он ничего не видит уже много лет, но, несмотря на недуг, каждое утро начинает со спортивных упражнений. Занимать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помогает жена Елена. Она тоже ни дня не проводит без спорта, и инвалидность ей несколько не мешает.

В учреждении разработана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абилитации «Здоровье Плюс», которая подразделяется на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В спортивном зале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людей установлены пневмосиловой тренажер и вертикализатор. Персонал дома-интерната полностью разделяет спортивные увлечения.

Главное достижение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я -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ациента после тяжелых болезней. Татьяна Видякина - сама бывший врач и после инсульта уже почти пришла в норму.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память ей помогает муж. С Аркадием женщина познакомилась здесь, недавно расписались.

Постояльцев в макаровском интернате более ста, пятая часть - старше 80 лет. Все живут активно и не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оторванными от внешнего мира.

- Мы стараемся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спартакиадах, олимпиадах. У нас есть и внутрен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 выезды на природу и в бассейн,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ом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Елена Полькина.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руководства - заняться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месте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весной постояльцы собираются провести экологический десант.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광고 - 광고

2월 8일(금) 18시 30분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동포 2세 문제와 기타 문제로 회의가 소집됨을 알립니다.

희망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глашает на собрание,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8 февраля 2019 г. в 18.30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На повестке собрания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очие вопросы.

Правление РООСК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주필) 배 위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